

# 아프리카계 미국인이 바라본 이분법적 고정관념

전남도립미술관 '에이시-듀시' 展  
영상 신작 '기적을 만드는 중' 공개  
학교에서 겪은 혼욕 트라우마 표현  
장밋빛 방에 다채로운 회화작까지

이분법적으로 나뉜 세상에 균열을 내는 아프리카계 미국인 출신 성소수자 작가의 전시회가 열려 눈길을 끌고 있다. 전남도립미술관은 오는 6월 4일까지 '리처드 케네디: 에이시-듀시(Richard Kennedy: Acey-Deucey)' 전을 진행한다.

미국 출신의 리처드 케네디(Richard Kennedy·1985년 생)는 현재 독일 베를린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예술가이다. 음악, 퍼포먼스는 물론 회화, 영상 등 전방위적인 작업을 펼치며 파격적인 예술 형식을 제시하는 등 작가로 국제적인 주목을 받았다.

전남도립미술관은 리처드 케네디의 작업을 선보여 현대 미술의 최신 경향을 제시하고 시각 예술뿐만 아니라 음악, 퍼포먼스 등의 종합 예술을 관객에게 선사하고자 한다.

리처드 케네디는 아프리카계 미국인 출신의 성소수자로서 이분법적 사회 지배 구조와 고정관념에 의문을 제기한다. 특히 그의 작품은 흑/백, 남성/여성, 정신/육체, 스승/제자, 성공/실패, 사회/개인, 영속성/순간성 등 세상의 이분법적 고정



리처드 케네디 작 '우유와 쿠키', 2023, 칠판에 백묵.

전남도립미술관 제공

관념과 가치 체계를 극명하게 드러내는 동시에 이를 허물어 버리려는 시도다.

전남도립미술관은 이번 전시에서 신작 영상 '기적을 만드는 중(Miracle W.I.P)'과 더불어 20여점의 회화를 선보인다. 전시는 크게 세 개의 방으로 구분되며 방마다 특성에 맞는 색상으로 연출했다.

첫 번째 방에는 작가의 최신 영상 '기적을 만드는 중(Miracle W.I.P)'이 공개됐는데, 여덟 개의 모니터에서 리처드 케네디의 퍼포먼스 영상이 상영된다. 작가는 베를린의 집집마다 버려진 크리스마스 트

리를 주위와 가상의 숲을 만들었다. 전시장은 칠흑처럼 어두운 숲속을 거니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든다.

작가는 이 작품에서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있는 자신의 두려움과 기대감을 표현했다. 이 작품의 모니터는 알파벳 'o'와 'h'처럼 보이게끔 배치되어 있는데, 이러한 모니터 구성은 감탄사 '오(oh)'인 동시에 자신이 유년 시절을 보낸 오하이오(Ohio)를 의미하기도 한다.

작가는 작품이 전시된 전시장 밖으로는 대조적인 흰 방을 배치해 전시장 사이의

'대비'를 강조하고, 사회의 이분법적 구조를 비유적으로 보여준다. 이는 흑과 백으로 구분된 삶을 넘어 하나의 기적을 만들자는 작가의 긍정적인 제안이 담겨있다.

두 번째 방은 학교의 교실처럼 꾸몄다. 작가 본인이 학교에서 받았던 거친 혼욕과 모멸감의 트라우마를 치유하고자 퍼포먼스를 행하고 그 결과물을 전시장에 제시했다. 작가는 몇 개의 커다란 칠판 위에 '나는 교실에서 주제넘게 말하지 않을 것이다. I will not speak out of turn in (class)'라는 문구를 뽀뽀하게 적고 지웠

다. 관객이 문장 전체를 한 번에 읽을 수 없고, 조각난 단어들을 조합해 의미를 파악하게끔 의도했다.

가득 적힌 문구는 시키는 대로만 행하 여야만 했던 교육 시스템에 대한 문제 제기다. 반복적인 학습에도 결국 개인의 개성을 지울 수는 없다는 예술가의 다짐이 깃들어 있기도 하다. 작품이 배치된 흰 전시장은 '깨몽(enlightment)' 즉 학생을 '빛(light)'으로 인도하려는 교육 현장인 동시에,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반짝이는 호기심을 의미한다.

마지막 방은 흑백의 구분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창작의 기쁨을 관객과 공유하는 장(場)이다. 장밋빛 방에는 작가의 다채로운 회화 작품이 선보여진다.

특히 최근 작가는 커다란 몸짓으로 붓을 휘두르고, 그 흔적을 캔버스에 남기고, 다시 켜켜이 붓질을 추가해 이전의 행위를 덮는 퍼포먼스 요소를 강조한 회화를 선보이고 있다. 또 캔버스 조각을 천처럼 엮은 직조 작업도 선보인다. 자신의 '망친' 작업을 잘라서 재구성한 것으로, 실패마저도 다시 가치를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을 몸소 실천한다.

리처드 케네디는 지금까지 약 10여 차례의 개인전을 개최했고, 파리의 팔레 드 도쿄(Palais de Tokyo), 뉴욕의 페로탱 갤러리(Galerie Perrotin) 등 세계 유수 미술기관의 단체전에 초청받은 바 있다.

도선인 기자 sunin.do@jnilbo.com



## 판소리로 만나는 세 열사 이야기

국립광주박물관 대강당에서 펼쳐지는 '판소리 감상회'의 공연 모습. 광주문화예술회 제공

26일 광주박물관 대강당서  
시립창극단 판소리 '열사가'

2023년 광주시립창극단 특별공연 '판소리 감상회'의 두번째 무대가 오는 26일 오후 3시에 국립광주박물관 대강당에서 펼쳐진다. 창극단에서 2022년 새롭게 선보인 '판소리 감상회'는 국립광주박물관에서 지난달 26일 시작으로 11월까지, 총 8회 펼쳐진다.

이번 공연은 양은주 명창의 소리와 김규형 명고의 북장단에 맞춰 창작 판소리 '열사가' 무대가 펼쳐진다.

창작 판소리 '열사가'는 1945년 우리나라를 되찾기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항일운동의 상징적인 영웅 '이준'과 '안중근', 그리고 '윤봉길' 열사에 대한 이야기

다. 창작 판소리 '열사가'를 통해 세 열사의 이야기를 하나의 줄거리로 감상할 수 있다.

'판소리 감상회'는 26일 이후에도 4월과 5월, 6월, 8월, 10월, 11월에 다양한 작품으로 만날 수 있다.

김규형 광주시립창극단 예술감독은 "3월 공연은 물론, 앞으로 진행될 판소리 감상회를 통해 한국의 예술적 가치와 정서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판소리가 여러 분들의 삶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시립창극단 특별공연 '판소리 감상회'는 전체 관람가로 윤종강 국악평론가의 해설과 함께 진행되며 광주문화예술회관과 티켓링크에서 전석 무료로 예매할 수 있다. 도선인 기자

## 진도 옛소리 감상해요

국립남도국악원 상여소리 발표  
메기는 소리·받는 소리 등 담겨

국립남도국악원은 진도의 향토 민요를 담은 음반 '진도의 향토민요 1: 상여소리'를 발간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발간된 '진도의 향토민요1: 상여소리' 음반은 지난 2021년부터 국립국악원 국악 아카이브에 보관돼 있던 음악 자료들을 정리한 것으로 '남도예술아카이브' 사업의 첫 결과물이다.

음반에는 진도를 대표하는 명인 양홍도, 손판기, 박성율, 박병천의 '메기는 소리'와 함께 진도 군내면, 인지기 주민들의 '받는 소리' 등이 담겨있다. 음반을 통해 옛 진도 지역의 순수하고 구수한 향토민요를 생생하게 감상할 수 있다.

그동안 저작권 등의 문제로 공개하기 어려웠던 자료들을 공식 발표할 수 있게 된 것은 진도 예술인들의 결정적인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에 국립남도국



국립남도국악원이 발표한 '진도의 향토민요1: 상여소리' 음반. 국립남도국악원 제공

악원은 감사의 의미로 지난 9일 국립남도국악원 진악당에서 음반 헌정식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강강술래보존회, 덕병거리제보존회, 의신청용마을, 진도다시래기보존회, 진도만가보존회, 진도씻김굿보존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고, 이들에게 음반과 함께 감사장을 수여했다.

국립남도국악원이 운영하고 있는 '남도 예술아카이브' 사업은 국립국악원이 수집해온 자료들을 지역민과 함께 공유하겠다는 취지다. 연말에는 추가로 '진도의 향토민요 2'가 발간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국립남도국악원 장악과(061-540-4029)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도선인 기자

## 광주청소년삶디자인센터, 공방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청소년 대상 4~6월 진행

광주청소년삶디자인센터(삶디)는 청소년들의 취미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공방 입문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모집 분야는 요리, 패션, 피규어, 통기타, 이모티콘, 목공 등 6개로 정했으며 삶디 공방에서 4월부터 6월까지 진행된다.

자세한 프로그램 내용은 △피규어를 커스터마이징하고 배경을 만드는 '피규어제작소' △통기타 기본 연주법을 배우는 '후루룩기타' △아이패드용 이모티콘을 제작하는 '얼떨결에:이모티콘' △채소 요리와 베이

킹을 배우는 '슬기로운 채소생활' △손수 바지를 만드는 '일상살림클래스.바지' △가구 디자인부터 제작까지 직접 해보는 '반려동물 가구제작' 등이다.

모집 대상은 14세~24세 청소년이 우선이나 성인도 참여할 수 있다. 참가비는 청소년은 무료고, 성인은 6만원이다. 모집 정원은 분야별 8명이다.

신청은 포스터에 있는 큐알코드를 연결, 각 분야별로 구글폼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모집기간이 프로그램별로 다르니, 자세한 내용은 전화(062-224-0543)로 문의하거나 삶디 홈페이지(samdi.or.kr)에서 확인하면 된다. 도선인 기자



광주청소년삶디자인센터의 공방 입문 프로그램에서 반려동물 가구를 제작하고 있는 모습. 삶디 제공